

지역 성평등

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

일자리(고용)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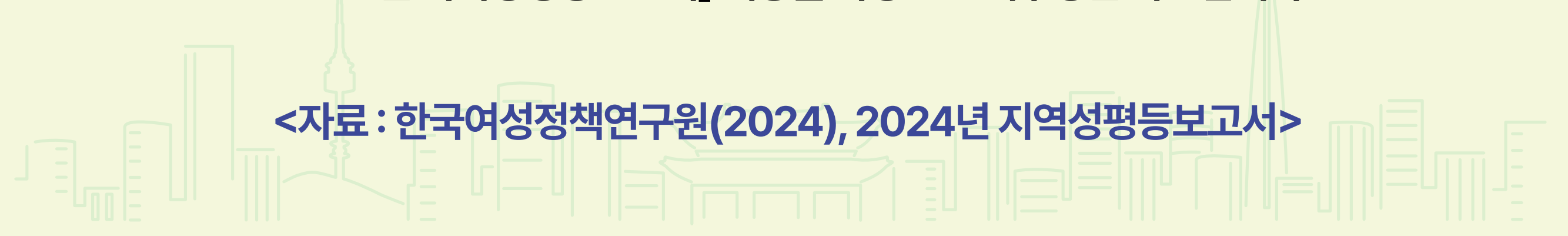
지역성평등지수

가 무엇인가요?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된 지수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지역성평등지수를 통해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성평등지수로 살펴보는 서울 시민의 삶> 카드뉴스 시리즈는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서울시의 일자리(고용) 영역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

일자리(고용) 영역은 **2021년 3위(82.8점), 2023년 3위(85.6점)**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고용률", "상용근로자 비율"과 "경력단절 여성 비율"의 성비로 측정됩니다. 높은 상용근로자 비율과 경력단절여성의 감소는 일자리(고용) 영역의 상위권 순위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역 및 구성지표	2021	2022	2023
(영역) 일자리(고용)	82.8	84.7	85.6
(지표1) 고용률	80.3	81.4	82.2
(지표2) 상용근로자 비율	84.9	88.7	88.2
(지표3) 경력단절 여성 비율	83.3	83.9	86.4

단위: 점 / 주: 각 연도는 통계 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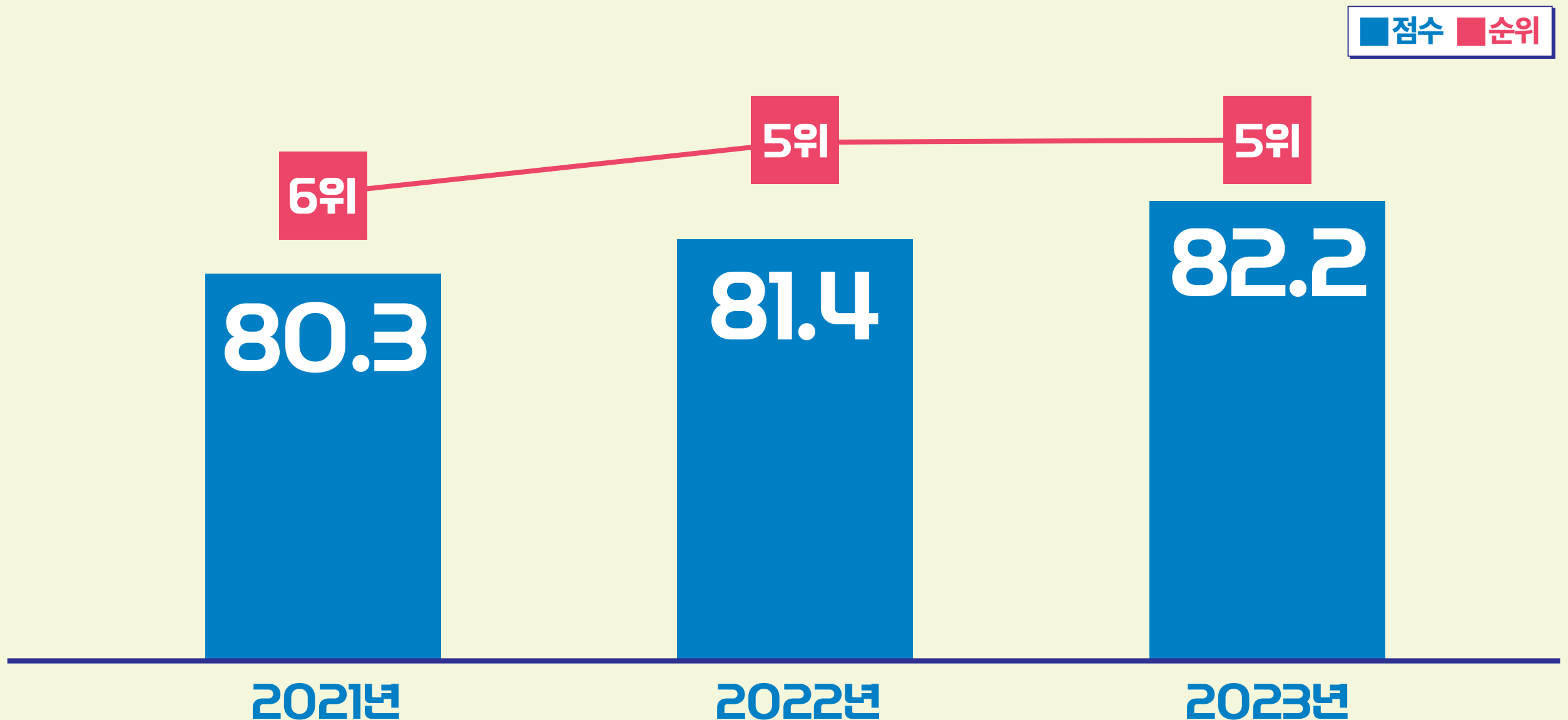
해석

모든 지표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서울 시민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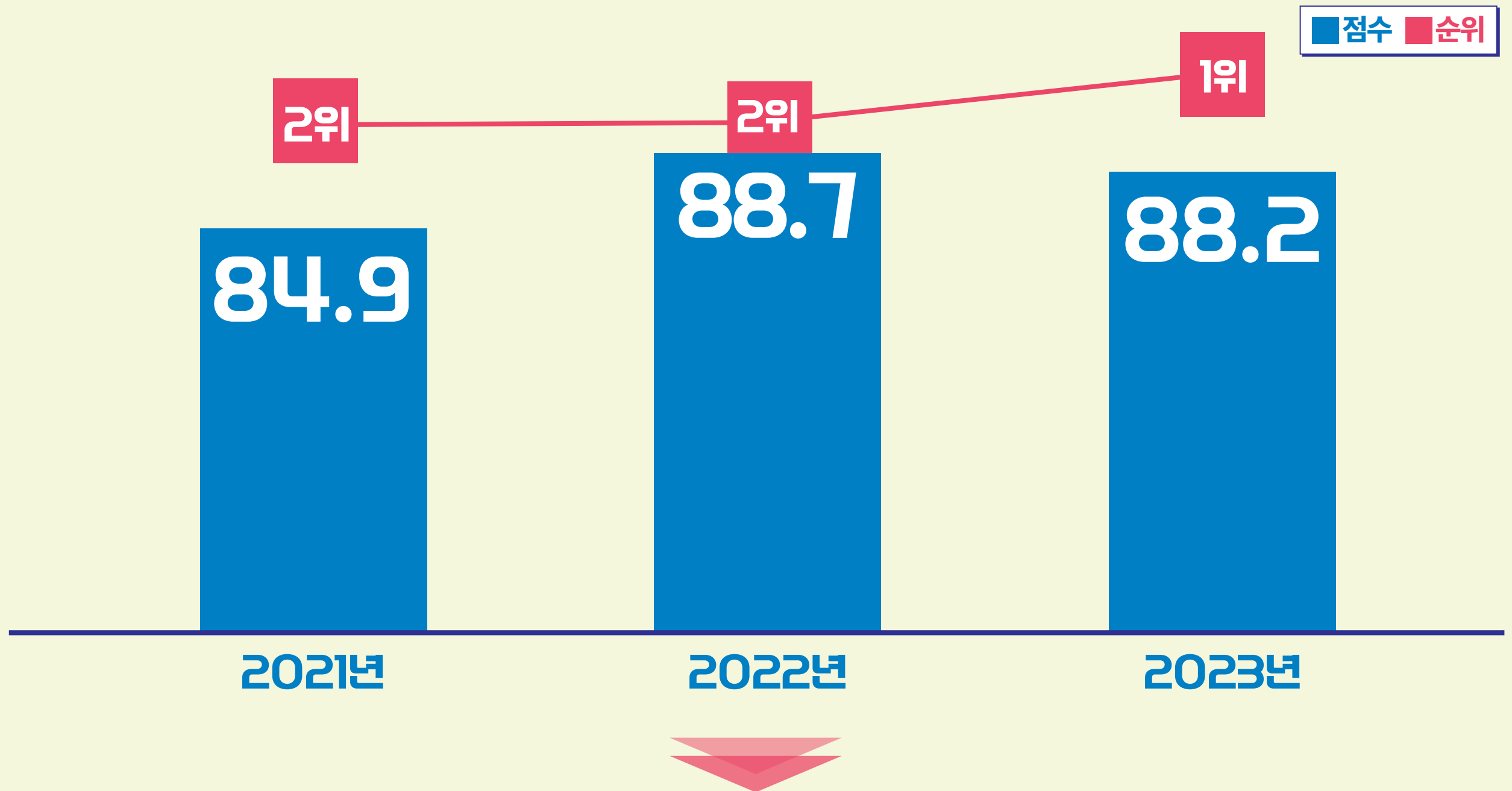
고용률 성별 격차 순위는 2021년 **6위(80.3점)**에서
2023년 **5위(82.2점)**으로 한 계단 순위 **상승**하였습니다.



전국의 **여성 고용률**은 51.2%에서 2023년 54.1%로 **상승 추세**이지만,
연령별 고용율을 살펴보면 **30대 이후는 남성의 고용률이 약 20~25%p 높게**
나타납니다.(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고용율의 차이는
여성이 임신·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의 상용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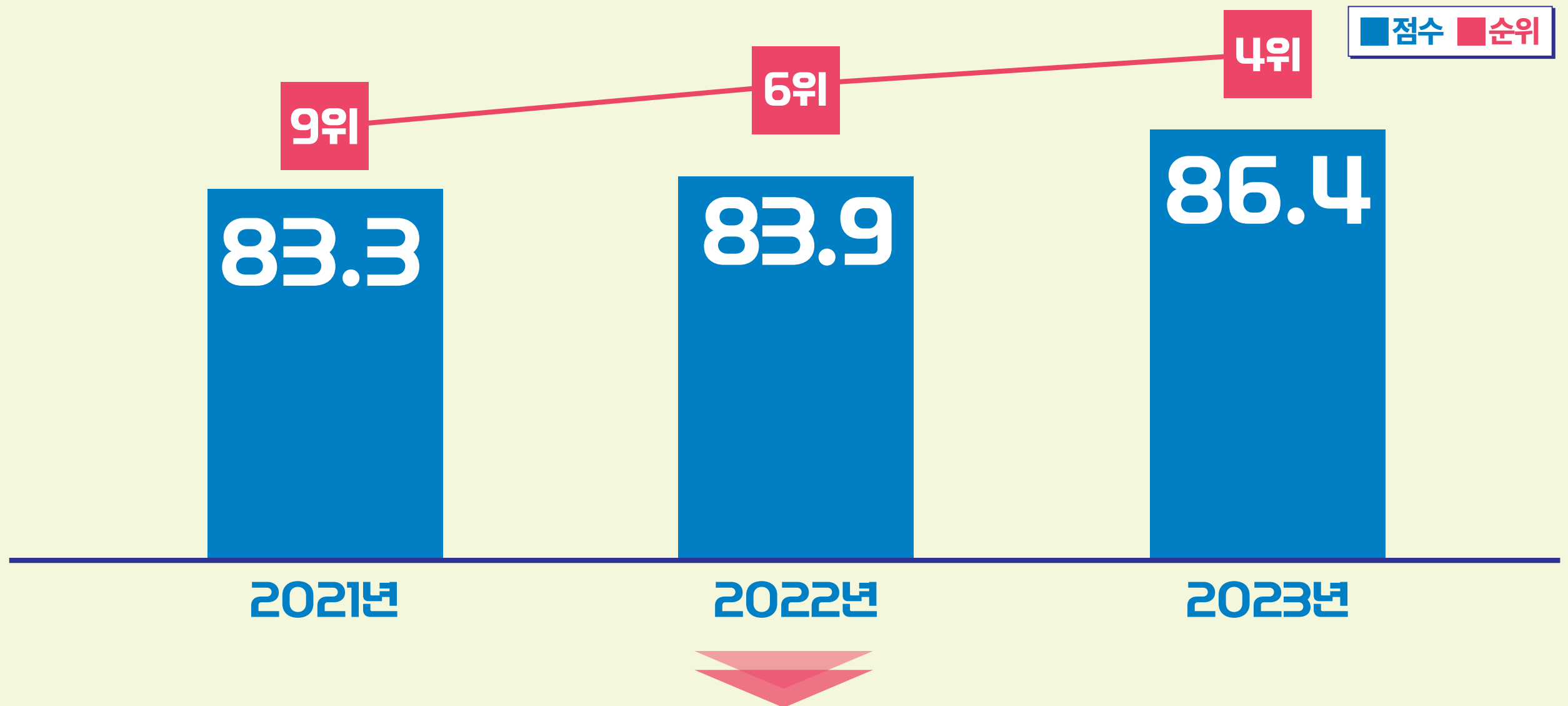
상용근로자 비율의 성별 격차 순위는 2021년 2위(84.9점)에서
2023년 1위(88.2점)으로 한 계단 순위가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성평등 수준이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여성 상용근로자는 2020년 173만명에서 2023년 185만명으로 약 12만명 증가하였고,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는 2020년 33만명에서 2023년 30만명으로 약 3만명 감소하여
안정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업체조사」)

서울의 경력단절 여성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을 집계한 경력단절 여성 지표의 순위는 2021년 9위(83.3점)에서 2023년 4위(86.4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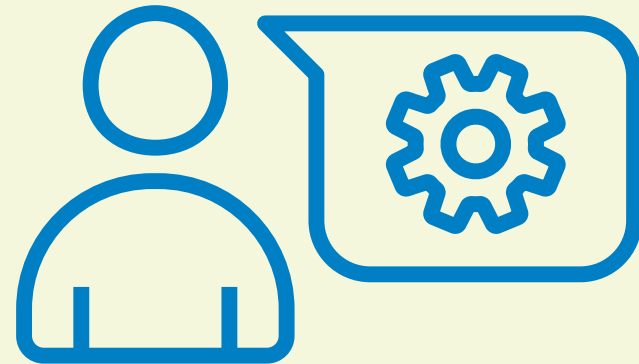
서울의 **경력단절여성비율**은 2020년 15.4%에서 2021년 16.7%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감소**하여 2023년 13.6% 수준입니다(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서울시 거주 경력단절여성의 19.6%는 결혼이나 임신·출산 등 생애사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 있는데, 일을 그만 둘 당시 **유연근무 어려움**(77.5%)과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움**(66.7%)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경력보유여성 지원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름



혹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단절”이라는 용어가 경제활동과 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여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생활 균형 노동환경 조성과 더불어
취업·창업·교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영역 지역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여성취업·창업·교육관련 전문기관 운영**과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진입 지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and 안정적 여성 일자리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교육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플라자 1개소, 창업보육센터 3개소) 운영
- 여성발전센터(5개소)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18개소)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25개소) 운영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3개소)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

고용·장려지속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새일여성인턴제
-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3개소)

서울시 여성취업·창업·교육관련 전문기관



- 직장맘 지원센터 (3개소)
- 여성발전센터 (5개소)
- 여성창업플라자 (1개소), 여성창업보육센터 (3개소)
-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일자리영역지역성평등지수를높이기위한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노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우먼업 프로젝트** 등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을 돕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통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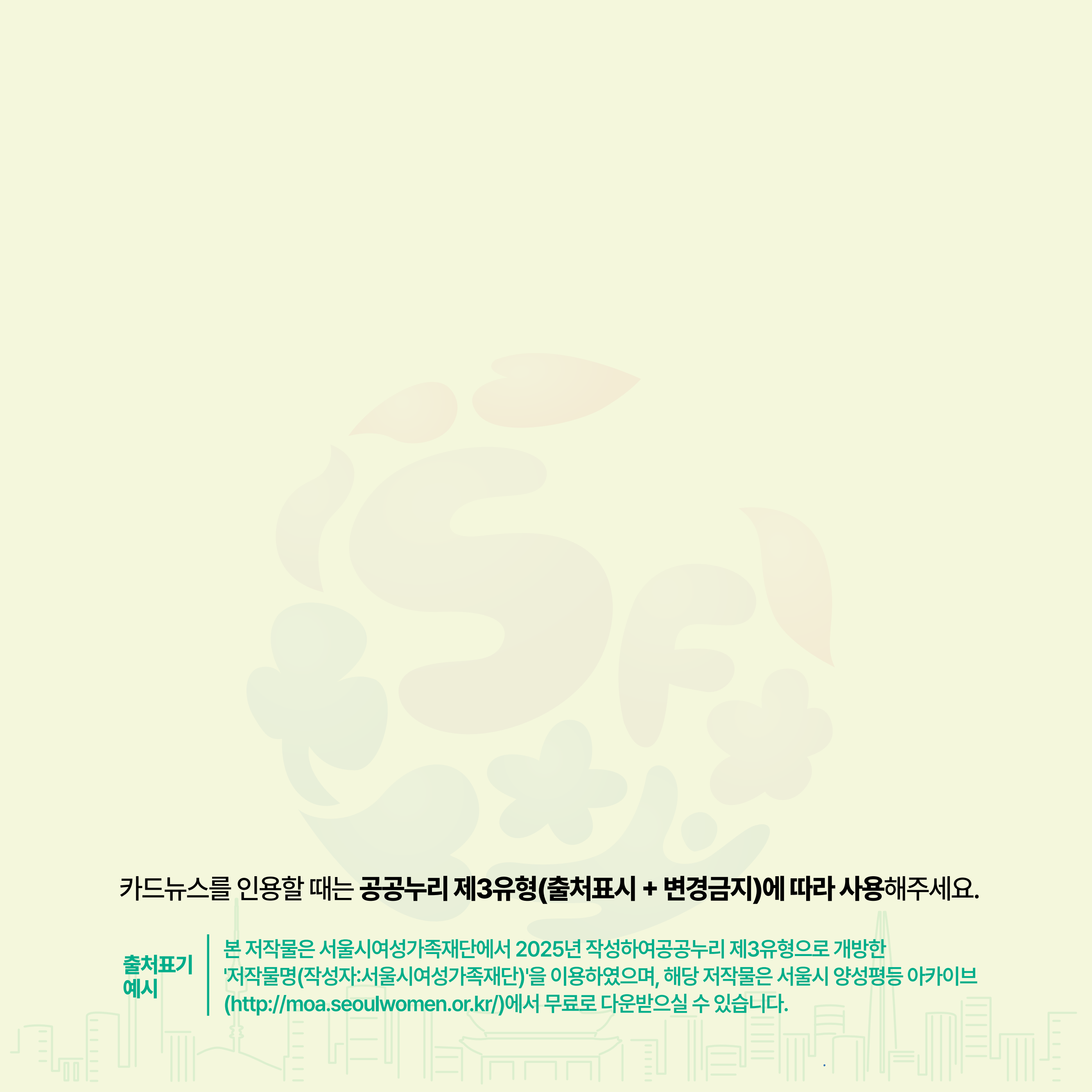
- 일자리 부르릉 버스 운영
- 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인턴십
- 학습 성장 커뮤니티'우먼잇츠(IT's)' 운영

양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 서울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운영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조직문화 지원 사업
(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고용·장려지속

-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 지원
- 우먼업 고용장려금



카드뉴스를 인용할 때는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에 따라 **사용**해주세요.

출처표기
예시

본 저작물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양성평등 아카이브 (<http://moa.seoulwomen.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